

문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목련은 연꽃처럼 생긴 꽃이 나무에 달린다고 하여 목련(木蓮)이라 한다. 우리나라 원산(原産)의 목련을 포함한 대부분의 목련은 찬바람이 채 가시지도 않은 이른 봄에 잎이 돋아나는 것을 기다릴 새도 없이 어른 주먹만한 흰 꽃을 먼저 피우는데, 성급하게 핀 꽃 치고는 그 자태가 우아하고 향기 또한 그윽하다.

주위에 흔히 보이는 목련은 대개가 중국에서 들여온 백목련이다. 우리나라 원산의 목련은 꽃잎이 좁고 얇으며 꽃잎이 뒤로 젖혀질 만큼 활짝 핀다. 또 꽃잎 안쪽에 붉은 선이 있고 꽃받침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반면 백목련은 꽃받침이 꽃잎처럼 변해 버려 구분하기 어려우며 꽃이 다 피어도 절반 정도밖에 벌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원산의 목련과 다르다.

이외에도 일본에서 들여온 일본목련이 있다. 우리나라 원산의 목련과는 달리 잎이 핀 다음에 꽃이 피고, 잎과 꽃의 크기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 둘을 구별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 하지만 엉뚱하게도 일본목련을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늘푸른나무인 후박나무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일본인들은 일본목련을 그들 말로 ‘호오노끼’라 부르면서 한자로는 ‘후박(厚朴)’이라고 표기한다. 그런데 일본목련을 수입해 올 때 일본어의 한자이름만 보고 그대로 ‘후박나무’로 번역해 버린 탓에 이 같은 혼란이 생긴 것이다.

—<보 기>—

- ㄱ. 백목련은 중국에서, 일본목련은 일본에서 들여왔다.
- ㄴ. 백목련과 우리나라 원산의 목련은 꽃이 벌어지는 정도로 구별 가능하다.
- ㄷ. 우리나라 원산의 목련은 꽃이 핀 다음에 잎이 핀다.
- ㄹ. 우리나라의 늘푸른나무인 후박나무와 일본의 호오노끼는 같은 나무이다.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문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Smart Entry Service)’는 대한민국의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의 명칭으로, 사전에 여권정보와 바이오정보(지문, 안면)를 등록한 후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 게이트에서 이를 활용하여 출입국심사를 진행하는 첨단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 이용자는 출입국심사관의 대면심사를 대신하여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해 약 12초 이내에 출입국심사를 마칠 수 있다.

17세 이상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민 및 국내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은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단, 복수국적자인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여권으로는 가입할 수 없다. 미국인의 경우 한·미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상호이용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이 아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 가입 희망자는 자동관독이 가능한 전자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바이오정보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문정보 취득 및 얼굴사진 촬영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지문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은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 가입을 위한 수수료가 면제되고, 한·미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상호이용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에 가입하려는 미국인은 1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가입 후,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 이용 중에 여권 또는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센터를 방문하여 변경사항을 수정하여야 하며, 심사대에서 지문 인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록센터를 방문하여 지문을 재등록 하여야 한다.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은 출입국시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 게이트 또는 일반심사대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고,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 게이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심사인 날인이 생략된다.

- ① 복수국적자인 대한민국 국민은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다.
- ② 외국인의 경우 국내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외에는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 가입이 불가능하다.
- ③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에 가입한 자는 출입국시 항상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 게이트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④ 한·미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상호이용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에 가입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은 100달러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 ⑤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 가입 후 여권을 재발급 받아 여권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는 등록센터를 방문하여 여권정보를 수정하여야 한다.

문 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일반적으로 간단한 과학 기술 원리를 적용하여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을 ‘적정 기술’ 혹은 ‘따뜻한 기술’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적정 기술의 기원은 작고 지역적이며 시골의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했던 간디의 물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적정 기술이 반드시 첨단 기술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최첨단 나노 기술을 적용하여 미세한 바이러스 입자까지 걸러내는 정수필터를 개발하였다. 이 정수필터를 장착한 물통은 2만 5천 리터의 물을 정수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하루에 단돈 0.5센트로 4명의 가족이 3년간 마실 수 있는 물을 확보할 수 있다. 어쩌면 이 물통의 보급이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적정 기술은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세계의 지도자들이 논의하고 있는 불균형 발전의 문제는 충분히 의제화되어 있기도 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매순간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14억 인구가 당장 오늘의 생계유지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적정 기술은 이러한 문제해결에 획기적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기여를 할 수 있다.

지금도 많은 과학자 혹은 공학자들이 연구실과 작업현장에서 수많은 적정 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적용한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온라인 상이나 보고책자 상에만 존재하고 있으며, 실용화되어 널리 쓰이고 있는 제품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제품 개발자들은 다국적 기업에 비해 사업 규모나 유통 인프라가 매우 열세하여, 제품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구매의 기회조차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 ① 적정 기술은 실제 활용의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 ② 적정 기술은 기술력이 앞선 다국적 기업에 의해 전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 ③ 첨단 기술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 기술 개발에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적정 기술은 빈곤과 불균형 문제의 해결보다는 현상과 원인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
- ⑤ 적정 기술은 자선의 목적으로 소외 지역에 무상 공급하는 제품에 적용되는 기술로 국한된다.

문 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 ~ E 중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은?

甲국의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사회안전 및 국민보건을 위해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수입물품(이하 “지정물품”이라 한다)에 대해 유통단계별 물품 거래내역(이하 “유통이력”이라 한다)을 추적·관리하는 제도이다. 유통이력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은 수입자와 유통업자이며, 이들이 지정물품을 양도(판매, 재판매 등)한 경우 유통이력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정물품의 유통이력 신고 의무는 아래 <표>의 시행일자부터 발생한다.

- 수입자: 지정물품을 수입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자
- 유통업자: 수입자로부터 지정물품을 양도받아 소매업자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양도하는 자(도매상 등)
- 소매업자: 지정물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
- 최종소비자: 지정물품의 형태를 변형해서 사용하는 자를 포함하는 최종단계 소비자(개인, 식당, 제조공장 등)

<표>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시행일자	지정물품
2009.8.1.	공업용 천일염, 냉동복어, 안경테
2010.2.1.	황기, 백삼, 냉동고추, 뱀장어, 선글라스
2010.8.1.	구기자, 당귀, 곱감, 냉동송어, 냉동조기
2011.3.1.	건고추, 향어, 활낙지, 지황, 천궁, 설탕
2012.5.1.	산수유, 오미자
2013.2.1.	냉동옥돔, 작약, 황금

※ 위의 <표>에서 제시되지 않은 물품은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① 수입한 선글라스를 2009년 10월 안경전문점에 판매한 안경테 도매상 A
- ② 당귀를 수입하여 2010년 5월 동네 한약방에 판매한 한약재 전문 수입자 B
- ③ 구기자를 수입하여 2012년 2월 건강음료 제조공장에 판매한 식품 수입자 C
- ④ 도매상으로부터 수입 냉동복어를 구입하여 만든 매운탕을 2011년 1월 소비자에게 판매한 음식점 주인 D
- ⑤ 수입자로부터 냉동옥돔을 구입하여 2012년 8월 음식점에 양도한 도매상 E

문 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법 제00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強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시행령 제00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00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 ② 법 제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 ③ 법 제0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독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보 기>

- ㄱ.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연골무형성증의 질환이 있는 임신 20주일 임신부와 그 남편이 동의한 경우
- ㄴ. 풍진을 앓고 있는 임신 28주일 임신부가 동의한 경우
- ㄷ. 남편이 실종 중인 상황에서 임신중독증으로 생명이 위험한 임신 20주일 임신부가 동의한 경우
- ㄹ. 남편이 실업자가 되어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한 임신 16주일 임신부와 그 남편이 동의한 경우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문 6. 다음 <상황>과 <대화>를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상 황>

지구와 거대한 운석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자, A국 정부는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해 甲, 乙, 丙 세 사람을 각각 냉동캡슐에 넣어 보존하기로 했다. 운석 충돌 후 시간이 흘러 지구에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자, 3개의 냉동캡슐은 각각 다른 시점에 해동이 시작되어 하루 만에 완료되었다. 그 후 甲, 乙, 丙 세 사람은 2120년 9월 7일 한 자리에 모여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대 화>

甲: 나는 2086년에 태어났습니다. 19살에 냉동캡슐에 들어갔고, 캡슐에서 해동된 지는 정확히 7년이 되었어요.

乙: 나는 2075년생입니다. 26살에 냉동캡슐에 들어갔고, 캡슐에서 해동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년 5개월 전입니다.

丙: 난 2083년 5월 17일에 태어났어요. 21살이 되기 두 달 전에 냉동캡슐에 들어갔고, 해동된 건 일주일 전이에요.

※ 이들이 밝히는 나이는 만 나이이며, 냉동되어 있는 기간은 나이에 산입되지 않는다.

<보 기>

- ㄱ. 甲, 乙, 丙이 냉동되어 있던 기간은 모두 다르다.
- ㄴ. 대화를 나눈 시점에 甲이 丙보다 나이가 어리다.
- ㄷ. 가장 이른 연도에 냉동캡슐에 들어간 사람은 甲이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문 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맥아음료 중 일정 비율을 초과한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는 것을 맥주라고 한다. 수입 맥아음료에 대한 관세율 및 주세율은 다음과 같다.

○ 관세의 부과기준 및 관세율

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맥아음료(알코올 함유량 100분의 0.5 이하 포함): 8%

나. 맥주(알코올 함유량 100분의 0.5 초과): 30%

○ 주세의 부과기준 및 주세율

알코올 함유량이 100분의 1 이상인 맥주: 72%

—<보 기>—

ㄱ. 알코올 함유량이 1%인 수입 맥아음료는 30%의 관세와 72%의 주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ㄴ. 주세 납부 대상이지만 관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 수입 맥아음료가 있다.

ㄷ. 알코올 함유량이 0.8%인 수입 맥아음료는 8%의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문 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같이 사용하면 부작용을 일으키는 화장품의 조합만을 모두 고르면?

화장품 간에도 궁합이 있다. 같이 사용하면 각 화장품의 효과가 극대화 되거나 보완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요즘은 화장품에 포함된 모든 성분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기본 원칙만 알고 있으면 제대로 짝을 맞춰 쓸 수 있다.

○ 트러블의 원인이 되는 묵은 각질을 제거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 저항력을 키우는 비타민 B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트러블과 홍조 완화에 탁월한 비타민 K 성분이 포함된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양 성분의 효과가 극대화되어 깨끗하고 건강하게 피부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 일반적으로 세안제는 알칼리성 성분이어서 세안 후 피부는 약알칼리성이 된다. 따라서 산성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비타민 A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때는 세안 후 약산성 토너로 피부를 정리한 뒤 사용해야 한다. 한편 비타민 A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오래된 각질을 제거하는 기능도 있다. 그러므로 각질관리 제품과 같이 사용하면 과도하게 각질이 제거되어 피부에 자극을 주고 염증을 일으킨다.

○ AHA 성분은 각질 결합을 느슨하게 해 묵은 각질이나 블랙헤드를 제거하고 모공을 축소시키지만, 피부의 수분을 빼앗고 탄력을 떨어뜨리며 자외선에 약한 특성도 함께 지니고 있다. 따라서 AHA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때는 보습 및 탄력관리에 유의해야 하며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

—<보 기>—

ㄱ. 보습기능이 있는 자외선 차단제와 AHA 성분이 포함된 모공축소 제품

ㄴ. 비타민 A 성분이 포함된 주름개선 제품과 비타민 B 성분이 포함된 각질관리 제품

ㄷ. 비타민 B 성분이 포함된 로션과 비타민 K 성분이 포함된 영양크림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문 9. 다음 <축제 안내문>과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공연을 볼 수 있는 최대 일수는?

<축제 안내문>

- 공연장소 : A도시 예술의 전당
- 축제기간 :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 공연시간 : 오후 7시(공연 시작 이후 공연장 입장은 불가합니다)
- 참고사항 : 모든 곡은 <작품별 공연개시일>에 표시된 날부터 연속하여 총 3일 동안 공연되고, 브루크너의 곡은 하루만 공연됩니다.

<작품별 공연개시일>

4/1(월)	4/2(화)	4/3(수)	4/4(목)	4/5(금)	4/6(토)	4/7(일)
•드보르작 - 교향곡 제9번	•쇼팽 - 즉흥환상곡	•브람스 - 바이올린 협주곡	•파가니니 -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시벨리우스 - 교향시 <관단다아> 서곡	•바흐 - 요한수난곡	•브람스 - 교향곡 제3번
•베르디 - 리골레토 서곡	•드보르작 - 교향곡 제8번	•생상스 - 교향곡 제1번	•메토벤 - 전원교향곡	•닐센 - 오페라 <시울과 다윗>	•베를리오즈 - 환상교향곡	•멘델스존 - 엘리야

4/8(월)	4/9(화)	4/10(수)	4/11(목)	4/12(금)	4/13(토)	4/14(일)
•베를리오즈 - 로마의 카발 서곡	•비발디 - 사계 중 봄	•슈만 - 사육제	•브람스 - 교향곡 제11번	•바흐 -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브루크너 - 교향곡 제6번	•브루크너 - 교향곡 제9번
•라벨 - 볼레로	•바그너 - 탄호이저 서곡	•브람스 - 교향곡 제2번	•헨델 - 스페인 칸타타	•쇼팽 - 야상곡	•브루크너 - 교향곡 제3번	

<조 건>

- 甲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B도시를 출발하여 주말을 A도시에서 보내고, 월요일 아침에 B도시로 돌아간다.
- 甲은 레슨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 평일에는 B도시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업을 듣는다.
- 레슨은 A도시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시작하여 오후 6시에 종료된다.
- 레슨 장소에서 예술의 전당까지 이동시간은 30분이며, B도시에서 예술의 전당까지 이동시간은 3시간이다.
- 甲은 베토벤 또는 브람스의 곡이 최소한 1곡이라도 공연되는 날짜에만 공연을 본다.

- ① 2일
- ② 3일
- ③ 4일
- ④ 5일
- ⑤ 6일

문 10. 다음 <상황>에서 기존의 승점제와 새로운 승점제를 적용할 때, A팀의 순위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상 황>

- 대회에 참가하는 팀은 총 13팀이다.
- 각 팀은 다른 모든 팀과 한 번씩 경기를 한다.
- A팀의 최종성적은 5승 7패이다.
- A팀과의 경기를 제외한 12팀 간의 경기는 모두 무승부이다.
- 기존의 승점제는 승리시 2점, 무승부시 1점, 패배시 0점을 부여한다.
- 새로운 승점제는 승리시 3점, 무승부시 1점, 패배시 0점을 부여한다.

기존의 승점제

새로운 승점제

- |   |     |     |
|---|-----|-----|
| ① | 8위  | 1위  |
| ② | 8위  | 8위  |
| ③ | 13위 | 1위  |
| ④ | 13위 | 5위  |
| ⑤ | 13위 | 13위 |

문 1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승정원은 조선시대 왕명 출납을 관장하던 관청으로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에 해당한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관청이 왕 - 의정부 - 육조 - 일반 관청이라는 계통 속에 포함된 것과는 달리 승정원은 국왕 직속 관청이었다.

승정원에는 대통령 비서실장 격인 도승지를 비롯하여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를 각각 1인씩 두었는데, 이를 통칭 6승지라 부른다. 이들은 모두 같은 품계인 정3품 당상관이었으며, 6승지 아래에는 각각 정7품 주서 2인이 있었다. 통상 6승지는 분방(分房)이라 하여 부서를 나누어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도승지가 이방, 좌승지가 호방, 우승지가 예방, 좌부승지가 병방, 우부승지가 형방, 동부승지가 공방 업무를 맡았다. 이는 당시 중앙부처 업무 분담이 크게 육조(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로 나누어져 있었고, 경국대전 구성이 6전 체제로 되어 있던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한편 6명의 승지가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은 아니었다. 같은 승지라 하더라도 도승지는 다른 나머지 승지들과 대우가 달랐고, 좌승지·우승지와 좌부승지·우부승지·동부승지의 관청 내 위계질서 역시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관청 청사에 출입할 때도 위계를 준수하여야 했고, 도승지가 4일에 한 번 숙직하는 반면 하위인 동부승지는 연속 3일을 숙직해야만 하였다.

주서는 고려 이래의 당후관(堂後官)을 개칭한 것으로 승정원을 통과한 모든 공사(公事)와 문서를 기록하는 것이 그 임무였다. 주서를 역임한 직후에는 성균관 전적이나 예문관 한림 등을 거쳐, 뒤에는 조선시대 청직(淸職)으로 불리는 홍문관·사간원·사헌부 등의 연관으로 진출하였다가 승지를 거쳐 정승의 자리에 이르는 사람이 많았다. 따라서 주서의 자격 요건은 엄격하였다. 반드시 문과 출신자여야 하였고, 인물이 용렬하거나 여론이 좋지 않은 등 개인적인 문제가 있거나 출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서에 임명될 수 없었다.

- ① 승정원 내에는 총 2명의 주서가 있었다.
- ② 승정원 도승지와 동부승지의 품계는 달랐다.
- ③ 양반자제로서 무과 출신자는 주서로 임명될 수 없었다.
- ④ 좌부승지는 병조에 소속되어 병방 업무를 담당하였다.
- ⑤ 홍문원·사간원 등의 연관이 승진한 후 승정원 주서를 역임하는 사례가 많았다.

문 1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피카레스크 소설’은 스페인만이 가진 독특한 문학 장르로 하류층의 삶을 소재로 해서 매우 현실적인 내용을 숨김없이 표현한다. 피카레스크 소설에서는 주인공을 ‘피카로’로 지칭하는데, 피카로는 장난꾸러기, 악동, 악당 등을 뜻하는 스페인어이다. 피카레스크 소설에서 주인공인 피카로는 항상 ‘나’의 시점에서 자신의 경험을 생생하게 서술한다. 주인공은 뚜렷한 직업이 없는 소년으로 구걸과 도둑질을 일삼으면서 양심의 가책 없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살아 가다가 오히려 자신의 계략에 희생당하는 인물이다.

피카레스크 소설은 그 배경이 된 시대의 사회상, 특히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냄으로써 사실주의적 경향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피카레스크 소설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도 큰 영향을 끼쳐서 18, 19세기에 사실주의 소설이 발전하는데 이바지했다.

피카레스크 소설 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1554년에 쓰여진 작가 미상의 『라사리요 데 토르메스』가 있다. 이 소설은 출판되자마자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으나, 그 속에 담긴 반(反)교회, 반(反)교권주의적인 내용 때문에 종교 재판소로부터 출판을 금지당하기도 했다. 한편 이 작품은 역사적·문화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심리학적 견지에서도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세계문학사상 최초의 근대 풍속소설로 꼽히고 있다.

—<보 기>—

- ㄱ. 피카레스크 소설을 통해 그 배경이 된 시대의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다.
- ㄴ. 피카레스크 소설 속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경험을 1인칭 시점에서 이야기한다.
- ㄷ. 피카레스크 소설은 주인공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결말지어진다.
- ㄹ. 『라사리요 데 토르메스』는 종교 재판소의 금지로 인해 출판되지도 못한 채 구전으로만 전해져 내려왔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 ⑤ ㄴ, ㄷ, ㄹ

문 1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건축은 자연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인위적인 시설인 지붕을 만들기 위한 구축술(構築術)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는 곳에 살고 있는 이상 지붕은 모든 건축에서 고려해야 할 필수적인 요소이다. 건축은 바닥과 벽 그리고 지붕의 세 요소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인류 최초의 건축 바닥은 지면이었고 별도의 벽은 없었다. 뿔형이나 삼각형 단면 구조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붕이 벽의 기능을 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지붕만 있는 건축으로는 넓은 공간을 만들 수 없다. 천장도 낮아서 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불편했다. 따라서 공간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건축술이 발달하면서 건축은 점차 수직으로 선 구조체가 지붕을 받치는 구조로 발전하였다. 그로 인해 지붕의 처마는 지면에서 떨어질 수 있게 되었고, 수직의 벽도 출현하게 되었다. 수직 벽체의 출현은 건축의 발달 과정에서 획기적인 전환이었다. 이후 수직 벽체는 건축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되었고, 그것을 만드는 재료와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구조와 형태의 건축이 출현하였다.

흙을 사용하여 수직 벽체를 만드는 건축 방식에는 항토(夯土)건축과 토담, 전축(塼築) 등의 방식이 있다. 항토건축은 거꾸집을 대고 흙 또는 흙에 강회(生石灰)와 짚여물 등을 섞은 것을 넣고 다져 벽을 만든 것이다. 토담 방식은 햇볕에 말려 만든 흙벽돌을 쌓아올려 벽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전축은 흙벽돌을 고온의 불에 구워 만든 전돌을 이용해 벽을 만든 것이다.

항토건축은 기단이나 담장, 혹은 성벽을 만드는 구조로 사용되었을 뿐 대형 건축물의 구조방식으로는 사용되지 않았고, 토담 방식으로 건물을 지은 예는 많지 않았다. 한편 전축은 전담, 담장, 굴뚝 등에 많이 활용되었고 조선 후기에는 화성(華城)의 건설에 이용되었다. 여름철에 비가 많고 겨울이 유난히 추운 곳에서는 수분의 침투와 동파를 막기 위해서 높은 온도에서 구워낸 전돌을 사용해야 했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커서 대량생산을 할 수 없었다.

<보 기>

- ㄱ. 수직 벽체를 만들게 됨에 따라서 지붕만 있는 건축물 보다는 더 넓은 공간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 ㄴ. 항토건축 방식은 대형 건축물의 수직 벽체로 활용되었을 뿐 성벽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 ㄷ. 토담 방식은 흙을 다져 전체 벽을 만든 것으로 당시 대부분의 건축물에 활용되었다.
- ㄹ. 화성의 건설에 이용된 전축은 높은 온도에서 구워낸 전돌을 사용한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ㄴ
- ③ ㄴ, ㄷ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문 1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첨단산업·지적소유권·건축공사·국제금융·파생상품 등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민사소송사건에서는 전문심리 위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증거조사·화해 등 소송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으로, 법원이 당해 사건의 관계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재판절차에 참여시키고 그로부터 전문적 지식에 관해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전문심리위원이 재판에 참여하면 당사자의 허위 진술을 방지할 수 있으며, 그의 전문지식을 통해 사안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을 할 때 소요되는 값비싼 감정료를 절감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한다. 전문심리위원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재판절차에 참여한다. 그러나 전문심리위원은 증인이나 감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설명이나 의견은 증거자료가 아니다. 한편 전문심리위원이 당사자,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질문하기 위해서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또한 전문심리위원은 재판부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판결 내용을 정하기 위한 판결의 합의나 판결문 작성에는 참여할 수 없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전문심리위원의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로 그 지정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한편 전문심리위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심리위원이 당사자의 배우자가 되거나 친족이 된 경우 또는 그가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등에는 법원이 그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그는 당연히 이후의 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 ① 소송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전문심리위원은 당사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
- ② 전문심리위원은 판결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진행되는 판결의 합의에 참여할 수 있다.
- ③ 전문심리위원이 변론에서 행한 설명 또는 의견은 증거자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은 그의 설명 또는 의견에 의거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 ④ 소송당사자가 합의하여 전문심리위원 지정결정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일지라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지정결정을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
- ⑤ 전문심리위원이 당해 사건에서 증언을 하였다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지정결정 취소가 없더라도 그는 전문심리위원으로서 이후의 재판절차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문 1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법 제00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시행령 제00조(재외국민의 정의) ① 법 제00조 제1호에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라 함은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00조 제1호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 함은 해외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00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법 제00조 제2호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2.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①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동포가 될 수 없다.
- ② 재외국민이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은 거주국의 영주권 취득이다.
- ③ 할아버지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미국 국적자는 재외국민이다.
- ④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회사업무를 위해 중국출장 중인 사람은 외국국적동포이다.
- ⑤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서 현재 브라질 국적을 취득한 자는 외국국적동포이다.

문 16. 다음 <근대 문물의 수용 연대>를 근거로 판단할 때, <A 사건>이 발생한 해에 볼 수 있었던 광경으로 옳게 추론한 것은?

<근대 문물의 수용 연대>

신문	한성순보(1883년 개간/1884년 폐간)
교통	철도: 경인선(1899년), 경부선(1905년) 전차: 서대문 ~ 청량리(1898년)
의료	광혜원(1885년), 세브란스 병원(1904년)
건축	독립문(1897년), 명동성당(1898년)
전기통신	전신(1885년), 전등(1887년 경복궁 내), 전화(1896년)

<A 사건>

경복궁 내에 여러 가지 기계가 설치되었다. 궁내의 큰 마루와 뜰에 등롱(燈籠) 같은 것이 설치되어 서양인이 기계를 움직이자 연못의 물이 빨아 올려져 끓는 소리와 우렛소리와 같은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가지 모양의 유리에 휘황한 불빛이 대낮 같이 점화되어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궁궐에 있는 궁인들이 이 최초의 놀라운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 내전 안으로 몰려 들었다.

- ① 광혜원에서 전화를 거는 의사
- ② 독립문 준공식을 보고 있는 군중
- ③ 서대문에서 청량리 구간의 전차를 타는 상인
- ④ <A 사건>을 보도한 한성순보를 읽고 있는 관리
- ⑤ 전신을 이용하여 어머니께 소식을 전하는 아들



문 1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의 甲 ~ 丁이 권장 시기에 맞춰 정기검진을 받는다면 첫 정기검진까지의 기간이 가장 적게 남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甲 ~ 丁은 지금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다)

암 검진은 암을 조기 발견하여 생존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정기검진의 시작 시기와 주기는 위암은 만 40세부터 2년 주기, 대장암은 만 50세부터 1년 주기, 유방암은 만 40세부터 2년 주기 등이다. 폐암은 흡연자인 경우 만 40세부터 1년 주기로, 비흡연 여성도 만 60세부터 검진을 받아야 한다. 간경변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거나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만 30세부터 6개월 간격으로 간암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많은 암환자들이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암 사망 원인 1위인 폐암은 부모나 형제자매 가운데 해당 질병을 앓은 사람이 있으면 발병 확률이 일반인의 1.95배나 된다. 대장암 환자의 30%도 가족력이 있다. 부모나 형제자매 중에 한 명의 대장암 환자가 있으면 발병 확률은 일반인의 2~3배가 되고, 두 명이 있으면 그 확률은 4~6배로 높아진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유방암도 가족력이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족력이 있으면 대장암은 검진 시기를 10년 앞당겨야 하며, 유방암도 검진 시기를 15년 앞당기고 검사 주기도 1년으로 줄여야 한다.

<보 기>

- ㄱ. 매운 음식을 자주 먹는 만 38세 남성 甲의 위암 검진  
 ㄴ. 대장암 가족력이 있는 만 33세 남성 乙의 대장암 검진  
 ㄷ.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만 25세 여성 丙의 유방암 검진  
 ㄹ. 흡연자인 만 36세 여성 丁의 폐암 검진

- ① 甲, 乙, 丙, 丁  
 ② 甲, 丙, 丁, 乙  
 ③ 丙, 甲, 丁, 乙  
 ④ 丙, 丁, 乙, 甲  
 ⑤ 丁, 乙, 丙, 甲

문 18. 다음 글과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2순위와 4순위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심야에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굉음을 내고 도로를 질주하여 주민들이 잠을 잘 수가 없다는 민원이 경찰청에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안전그물 설치, 전담반 편성, CCTV 설치, 처벌 강화, 시민자율방범의 5가지 대안을 마련하였고, 그 대안별 우선순위를 알고자 한다.

<조 건>

대안 평가기준	(ㄱ) 안전그물 설치	(ㄴ) 전담반 편성	(ㄷ) CCTV 설치	(ㄹ) 처벌 강화	(ㅁ) 시민자율 방범
효과성	8	5	5	9	4
기술적 실행가능성	7	2	1	6	3
경제적 실행가능성	6	1	3	8	1
행정적 실행가능성	6	6	5	5	5
법적 실행가능성	6	5	5	5	5

- 우선순위는 각 대안별 평가기준 점수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정한다.
- 합계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법적 실행가능성 점수가 높은 대안이 우선순위가 높고, 법적 실행가능성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효과성 점수, 효과성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 실행가능성 점수, 행정적 실행가능성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실행가능성 점수가 높은 대안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2순위

4순위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ㄹ ㄴ  
 ④ ㄹ ㄷ  
 ⑤ ㄹ ㅁ

문 19. 다음 <규칙>과 <결과>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甲과 乙 중 승리한 사람과 甲이 사냥한 동물의 종류 및 수량으로 가능한 조합은?

—<규 칙>—

- 이동한 거리, 채집한 과일, 사냥한 동물 각각에 점수를 부여하여 합계 점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다.
- 게임시간은 1시간이며, 주어진 시간 동안 이동을 하면서 과일을 채집하거나 사냥을 한다.
- 이동거리 1미터 당 1점을 부여한다.
- 사과는 1개 당 5점, 복숭아는 1개 당 10점을 부여한다.
- 토끼는 1마리 당 30점, 여우는 1마리 당 50점, 사슴은 1마리 당 100점을 부여한다.

—<결 과>—

- 甲의 합계점수는 1,590점이다. 甲은 과일을 채집하지 않고 사냥에만 집중하였으며, 총 1,400미터를 이동하는 동안 모두 4마리의 동물을 잡았다.
- 乙은 총 1,250미터를 이동했으며, 사과 2개와 복숭아 5개를 채집하였다. 또한 여우를 1마리 잡고 사슴을 2마리 잡았다.

승리한 사람

甲이 사냥한 동물의 종류 및 수량

- |   |   |                |
|---|---|----------------|
| ① | 甲 | 토끼 3마리와 사슴 1마리 |
| ② | 甲 | 토끼 2마리와 여우 2마리 |
| ③ | 乙 | 토끼 3마리와 여우 1마리 |
| ④ | 乙 | 토끼 2마리와 여우 2마리 |
| ⑤ | 乙 | 토끼 1마리와 사슴 3마리 |

문 20. 다음 <규칙>을 근거로 판단할 때, ‘도토리’와 ‘하트’를 각각 가장 많이 획득할 수 있는 꽃은?

—<규 칙>—

- 게임 시작과 동시에 주어지는 12개의 물방울을 가지고 1시간 동안 한 종류만의 꽃을 선택하여 재배·수확을 반복한다.
- 12개의 물방울은 재배·수확이 끝나면 자동 충전된다.
- 꽃을 1회 재배·수확하기 위해서는 꽃 종류별로 각각 일정한 ‘재배·수확시간’과 ‘물방울’이 필요하다.
- 재배·수확된 꽃은 ‘도토리’나 ‘하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교환할 수 있다.
- 이외의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구분	재배·수확 시간(회 당)	물방울 (송이 당)	도토리 (송이 당)	하트 (송이 당)
나팔꽃	3분	2개	2개	1개
무궁화	5분	4개	3개	5개
수선화	10분	2개	5개	10개
장미	12분	6개	10개	15개
해바라기	20분	4개	25개	20개

예) 나팔꽃 1송이를 재배·수확하는데 필요한 물방울은 2개이므로 12개의 물방울로 3분 동안 6송이의 나팔꽃을 재배·수확하여 도토리 12개 또는 하트 6개로 교환할 수 있다.

도토리

하트

- |        |      |
|--------|------|
| ① 해바라기 | 수선화  |
| ② 해바라기 | 해바라기 |
| ③ 무궁화  | 장미   |
| ④ 나팔꽃  | 해바라기 |
| ⑤ 나팔꽃  | 수선화  |

문 2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의 빈칸에 들어가는 것을 옳게 짝지은 것은?

A국에서는 1 ~ 49까지 숫자를 셀 때 다음과 같은 명칭과 규칙을 사용한다. 1 ~ 5는 아래와 같이 표현한다.

1 → tai  
2 → lua  
3 → tolu  
4 → vari  
5 → luna

6에서 9까지의 수는 위 명칭에 ‘새로운’이라는 뜻을 가진 ‘o’를 앞에 붙여 쓰는데, 6은 otai(새로운 하나), 7은 olua(새로운 둘), 8은 otolu(새로운 셋), ... (으)로 표현한다.

10은 5가 두 개 더해진 것이므로 ‘두 개의 다섯’이란 뜻에서 lualuna( $2 \times 5$ ), 15는 ‘세 개의 다섯’이란 뜻에서 toluluna( $3 \times 5$ ), 20은 variluna( $4 \times 5$ ), ... (으)로 표현한다. 즉, 5를 포함하는 두 개 숫자의 곱이다.

11부터는 ‘더하기’라는 뜻을 가진 ‘i’를 중간에 넣고, 그 다음에 1 ~ 4 사이의 숫자 하나를 순서대로 넣어서 표현한다. 따라서 11은 lualuna i tai( $2 \times 5 + 1$ ), 12는 lualuna i lua( $2 \times 5 + 2$ ), ..., 16은 toluluna i tai( $3 \times 5 + 1$ ), 17은 toluluna i lua( $3 \times 5 + 2$ ), ... (으)로 표현한다.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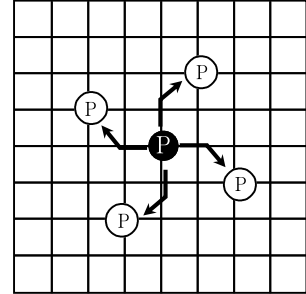
ㄱ. 30은 (     )로 표현한다.

ㄴ. ovariluna i tolu는 숫자 (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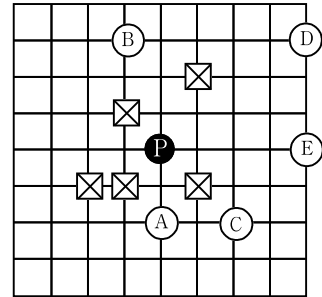
- | ㄱ             | ㄴ  |
|---------------|----|
| ① otailuna    | 48 |
| ② otailuna    | 23 |
| ③ lualualuna  | 48 |
| ④ tolulualuna | 17 |
| ⑤ tolulualuna | 23 |

문 22. 다음 <그림>처럼 P가 1회 이동할 때는 선을 따라 한 칸 움직인 지점에서 우측으로 45도 꺾어서 한 칸 더 나아가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하지만 P가 이동하려는 경로 상에 장애물(⊗)이 있으면 움직이지 못한다. <보기> A ~ E에서 P가 3회 이하로 이동해서 위치할 수 있는 곳만을 옳게 묶은 것은?

<그 림>



<보 기>



- ① A, B
- ② B, D
- ③ A, C, E
- ④ B, D, E
- ⑤ C, D, E

문 23.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국 A정당 회계책임자가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한 총 횟수는?

법 제00조 정당 회계책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에 정한 대로 회계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는 다음 연도 2월 15일에 한다.

2. 공직선거에 참여한 연도

가. 매년 1월 1일부터 선거일 후 20일까지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는 당해 선거일 후 30일 (대통령선거는 40일)에 한다.

나. 당해 선거일 후 2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는 다음 연도 2월 15일에 한다.

<상 황>

- 甲국의 A정당은 위 법에 따라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했다.
- 甲국에서는 2010년에 공직선거가 없었고, 따라서 A정당은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 甲국에서는 2011년 12월 5일에 대통령선거를, 2012년 3월 15일에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하였고, 그 밖의 공직선거는 없었다.
- 甲국의 A정당은 2011년 대통령선거에 후보를 공천해 참여하였고,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에도 후보를 공천해 참여하였다.

- ① 3회
- ② 4회
- ③ 5회
- ④ 6회
- ⑤ 7회

문 2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8개 국가의 장관이 회담을 위해 ○○에 모였다. 각국의 장관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회담이 갑자기 개최되어 통역관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통역을 거칠 수도 있고, 2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장관이 통역관의 역할을 겸할 수도 있다.

현재 회담에 참여하는 장관과 배석 가능한 통역관은 다음과 같다.

장관	사용언어
A	네팔어
B	영어
C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D	카자흐어, 러시아어
E	영어, 스와힐리어
F	에스파냐어
G	스와힐리어
H	한국어

통역관	통역 가능한 언어
甲	한국어, 우즈베크어
乙	영어, 네팔어
丙	한국어, 에스파냐어
丁	한국어, 영어, 스와힐리어

<보 기>

- ㄱ. A장관이 F장관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명의 통역관이 배석하여야 한다.
- ㄴ. 통역관이 丁밖에 없다면 H장관은 최대 3명의 장관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 ㄷ. 통역관 丁이 없으면 G장관은 어느 장관과도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
- ㄹ. 8명의 장관과 4명의 통역관이 모두 회담에 참석하면 모든 장관들은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문 2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전 세계 벼 재배면적의 90%가 아시아에 분포한다. 현재 벼를 재배하는 면적을 나라별로 보면, 인도가 4,300헥타르로 가장 넓고, 중국이 3,300헥타르로 그 다음을 잇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타이, 미얀마, 일본의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A국은 일본 다음이다.

반면 쌀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20%를 생산하는 인도이다. 단위면적 당 쌀 생산량을 보면 A국이 헥타르 당 5.0톤으로 가장 많고 일본이 헥타르 당 4.5톤이다. A국의 단위면적 당 쌀 생산량은 인도의 3배에 달하는 수치로 현재 A국의 단위면적 당 쌀 생산능력은 세계에서 제일 높다.

—<보 기>—

- ㄱ. 중국의 단위면적 당 쌀 생산량은 인도의 약 2배이다.
- ㄴ. 일본의 벼 재배면적이 A국보다 400헥타르가 크다면, 일본의 연간 쌀 생산량은 A국보다 많다.
- ㄷ. 인도의 연간 쌀 생산량은 11,000톤 이상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